

전남 농축협 피싱 피해 284억...4년 새 17배

피해 건수 110건→588건 급증...광주도 62억 달해 계좌 1만개당 사기 이용 전남 0.98개·광주 0.92개

전남지역 농축협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284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6억85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7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다. 광주 역시 피해액이 62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전남광주지역 농축협을 겨냥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농축협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발생건수는 2022년 110건에서 2023년 90건, 2024년 226건, 2025년 588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액도 2022년 16억8500만원에서

2023년 22억9900만원, 2024년 61억5300만원, 2025년 284억3200만원으로 급증했다. 피해 발생건수는 전국 3위, 피해액은 경기 다음으로 전국 2위였다.

광주도 피해 규모가 가파르게 커졌다. 피해 발생건수는 2022년 39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92건, 2025년 212건으로 늘었다. 피해액 역시 2022년 3억1500만원에서 2025년 62억 2400만원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계좌 수를 고려한 사기이용계좌 발생 수준도 높았다.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사기이용계좌는 전남 529개, 광주

214개로, 계좌 1만개당 각각 0.98개와 0.92개였다. 전남은 이 지표가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3위였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7.4%로 전국 평균 20.3%를 크게 웃돌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책 강화가 요구된다.

농협은 지난해 8월부터 365일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2024년 10명에서 올해 25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피해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별 사고 특성을 반영한 예방대책이 필요하

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전남은 고객 연령과 거래 거래 비중, 피해 경로 등을 세분화해 영업점 단계에서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미애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현장의 고객과 거래 특성에 맞춘 예방대책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발생건수와 계좌당 발생 지표가 높은 지역부터 어느 단계에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지역별 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나주서 60대 부부 피살...50대 긴급체포

결박된 채 발견...피해자 통장서 600만원 인출

전남광주통합시특례시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7분 무안군 승달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52)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49분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1차 감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찔린 외인사, 부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각각 추정됐다.

조사 결과 평소 B씨를 알고 지낸 A씨는 주택에 침입해 부부의 손을 정테이프로, 발을 옷가지로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부인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1t 트럭을 훔쳐 달아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1t 트럭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약 1.3km 떨어진 죽산보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트럭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가 버린 전기자전거도 찾았다.

A씨가 B씨 부부의 통장을 쟁겨 달아나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다. 한 주민은 “평소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지내던 부부였다”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상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주경찰은 형사 4개 팀을 전남수사팀으로 편성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고인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충분한 지원도 병행한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테마의 거리 개막 7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동구 금남로 빛의음성 일원에 조성된 총장축제 테마의 거리 개막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구제길 축제위원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댄스팀의 공연을 보며 율동을 따라 하고 있다.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오는 11일까지 금남로와 총창로, 5·18민주광장, 예술의거리 일원에서 열린다. 최기남 기자 bluesky@

전남광주 감염병 의사 역학조사관 고작 '1명'

법정 기준도 못 채워...수습인력은 '전국 최다'

전남광주지역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의사 역학조사관이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중보건 의사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공보의 수급 차질이 다시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방역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광주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정식 역학조사관은 1명에 불과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 역학조사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 올해 8월 87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은 2023년 22명에서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적으로 1명만 남았다.

전체 역학조사관의 상당수도 아직 교육과정에 있는 수습 인력이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시·도 역학조사관 87명 가운데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31명(35.6%)에 그쳤고, 56명(64.4%)은 수습역학조사관이었다. 특히 전남광주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명(경기 7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자료상 16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고, 전남광주를 비롯해 세종·강원·전북·제주도 1명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감소 원인으로 의정감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수급 차질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중보건 의사에 의존하는 역학조사관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가 다시 공보의 수급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 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감염병은 인력이 총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보의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총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2	달달	03:48
☁️	예보	18:07	달달	16:42



광주	☀️	11~26
목포	☀️	13~24
여수	☀️	13~25
순천	☀️	12~25
구례	☀️	9~26
광주	☀️	9~25
임도	☀️	13~25
흑산도	☀️	17~23
전남	☀️	10~25
고흥	☀️	10~25
진도	☀️	12~24

목포	밀물(고)	00:13 / 12:31
	썰물(저)	05:41 / 17:52
여수	밀물(고)	07:31 / 19:48
	썰물(저)	01:20 / 13:26

교도소 출소...또 차량털이

만년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와 광산구 등에서 잠금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피해 금액은 345만원에 달해.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 202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 올해 4월 7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3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개정식

2026. 10. 7(수)

7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정식에서 임은정 초대 청장이 개청사를 하고 있다.

행남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광주중수청 공식 출범

호남·제주권 중대범죄 수사 전담...140명 근무 임은정 중수청장 “시민 곁에서 사법정의 실현”

전남광주·전북·제주지역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광주중수청)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알렸다.

광주중수청은 7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북구 중흥동 청사 현관에서 개청식을 대신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과 양영

우 광주경찰청장,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중수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중수청은 지난 2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별도의 개청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현판 제막식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광

주중수청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은정 청장은 “저를 비롯해 이곳에 있는 수사관 모두 신입사원으로서의 설렘보다는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78년 역사를 마친 검찰의 자책을 딛고 권력이 아닌 시민 곁에서, 힘을 모아 짜여 누르던 잔인한 정의가 아닌 묵묵히 진실을 쫓아가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새롭게 출범한 광주중수청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배의 출항을 축하한다”며 “그 원칙을 잊지 않고 겸허하게 나아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민은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

하면서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염원하고 있다”며 “광주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등 중대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광주중수청은 호남과 제주권의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외국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1청장·1차장·3국·10과·4팀당단 체제로 운영되며 청원은 수사관과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240명이다.

다만 출범 현재 실제 근무 인원은 140명으로 청원의 58.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